

바람1

김지하

내

다시금 칼을 뽑을 땐

칼날이여

연꽃이 되라

죽을 싸움 싸우다 죽어

피투성이 피투성일지라도

손에 쥔 것은 칼이 아닌

연꽃이 되라

연꽃이 되라

반쪽만 남은 돌미륵

모로 누운 채 잠든 내

주검 곁에서 웃어라

너는 크게 웃어라

아아아

이 커다란 품.

피는 꽃처럼

20160042 구인용

본교 문학동아리 문학의 트랙에서는 매주 동인들이 들고 온 글을 합평(合評)하는 활동을 한다. 간단한 동아리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외에는 이 활동이 거의 정기 모임의 전부라서, 아무도 글을 들고 오지 않는 날이면 모여서 딱히 할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나는 매주 글 한 편을 들고 가고자 노력하지만, 매주 새로운 글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그것을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다. 물론 지금은 동인들과 스스럼 없이 글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부담이 덜하지만, 신랄한 비평은 언제나 반가운 만큼 아프다.

작년 초, 새내기들의 떨리는 가슴을 안고 합평에 들고 갔던 나의 첫 글은 아직도 회자되는 부끄러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글의 제목은 “타고 싶다”였는데,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문득 시대를 뒤덮는 뜨거운 열기에 나도 한 몫 거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떠한 계기가 나에게 막중한 사명을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개비 장작으로 던져져도 아쉬울 것 없는 초라한 삶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어느 날 부끄러웠다. 한 줌의 재로 남지 않으면 在하기가 어려울 것만 같았다. 이성을 사랑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靑春, 나는 그것을 동경했다. 20 대의 첫 봄은 어느 때보다 푸르리라. 빨간 색안경을 낀 채 우리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춤을 추리라. 마음껏 고민하고 분노하며, 노래하리라. 젊음의 불길은 내일을 부르는 여명으로 각인될 것이며, 검게 말라버린 나의 피를 다시금 붉게 산화시키리라.

(중략)

그러나 나는 젖은 장작이다. 매일 밤 매운 연기 같은 글을 토해내면서도, 한 번 제대로 불 붙지 못하는 젖은 장작이다. 아직은 성장중인 나무라고, 더 울창하고 시원하게 가지를 드리우면 그 때도 늦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동안에도 꽃 하나 피우지 못하는 썩은 목재이다. 하염없이 꺾이고 흔들리면서도 변명과 자기위안을 일삼는 유약한 지푸라기다.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 알코올을 끊임없이 들이 부어대는 미련한 불쏘시개다. (후략)’

첫 글부터 어린 마음을 짓밟고 싶지는 않았는지, 선배들은 애써 예들려 표현하셨지만 글에 대한 평가는 (지금 내가 보기엔) 정확했다. ‘빨강다.’ ‘선동적이다.’ ‘부담스럽다.’는 내용이었다. 혈기 가득한 어조로 모든 문장에 힘을 실으려 하니 읽기가 버겁다는 비평을 받았다. (물론 호평도 있었으나 제 글에 대한 호평을 직접 언급하기도 민망하고, 본 에세이와는 다소 무관하니 내용은 생략한다.)

감히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이 평가는 내가 김지하의 글에 대해 느낀 바와 거의 동일하다. 그 이유를 논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것이 있다. 박노해 에세이 발표 후에 교수님께서 붙여 주신 ‘좌파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나는 김지하의 글을 이번에 처음 접했다. 물론 김지하의 글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고 낭만이 꼭 청춘만의 것도 아니겠지만, 몇 편의 시를 훑고 나니 어떤 익숙한 이미지가 다가왔다. 뜨겁고 붉은 햇불.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신 시대에 그의 글이 금기시 되었다는 내용을 시집 소개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민중가요 “타는 목마름으로”가 같은 제목의 김지하의 시를 각색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반가움과 부끄러움의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 스스로가 마치 베토벤을 모르면서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 같았다.

아무튼, 나의 “타고 싶다” 글은 김지하의 글에 대한 감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까닭에 본 에세이에도 적지 않은 양을 옮겨가며 소개한 것이다.) 김지하의 글은 희나리 같은 나조차도 감화시킬 정도로 강렬한 색의 글이었다.

내가 이해한 김지하는 박노해와 닮은 듯 달랐다. 언뜻 보기에는 성향이나 문체가 비슷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나는 김지하가 박노해보다 조금 더 좋았다. 김지하의 글은 조금 더 감성을 세련되게 자극한다.

부연하자면, 박노해의 글을 지배하는 감정은 ‘분노’였다. 김지하의 글은 ‘견딜 수 없음’이다. 빼앗긴 민주주의가, 사라진 벗들이, 옛 사랑이, ‘서로 싸우지 않고는 서로 물어뜯지 않고는 / 견딜 수 없는 낯선 마을의 캄캄한 이 시대의 한밤 (“별빛마저 보이지 않네”)’이. 김지하는 이런 견딜 수 없는 괴로움들을 글에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런 까닭에 그의 글은 읽는 것만으로도 아프다. 분노의 감정에 지배되어 독자들을 설득하고 고무시키는 박노해와 다르게, 김지하는 그런 감정의 뿌리인 고통, 그 깊은 ‘자극’을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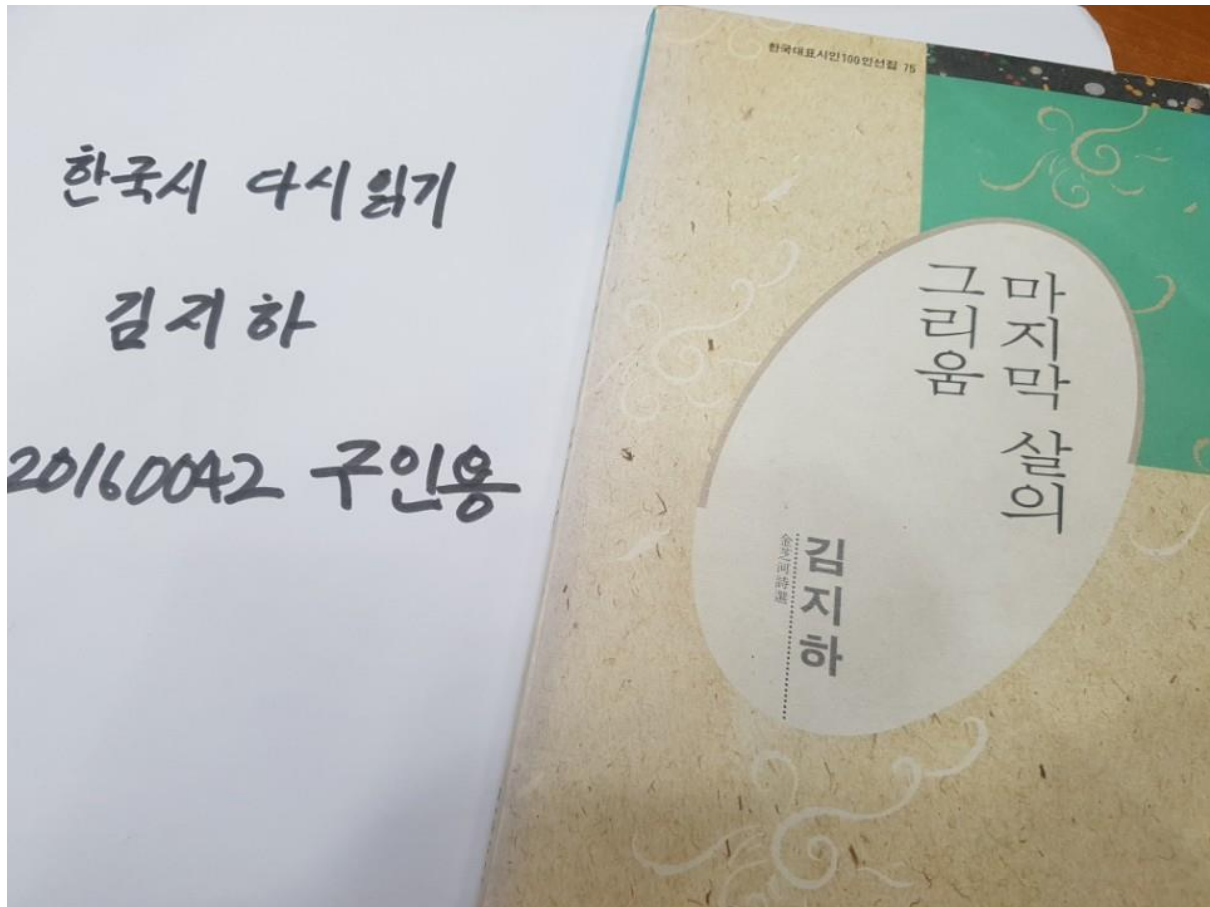
그의 글은 정말 노골적으로 고통을 담고 있다. ‘뜯눈의 주검 (“매장”)’, ‘타는 목마름 (“타는 목마름으로”)’, ‘구겨진 육신 (“결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짧은 수식어만으로도 시어가 갖는 고통의 측면을 극대화하는가 하면, ‘거역하다 찢린 목’, ‘외치다 찢긴 팔’ (“남쪽”)이나, ‘낯 가는 사람 (“빈집”)’ 같이 섬뜩한 이미지로 마음 한 구석을 불편하게 한다. 그의 글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시어 중 하나가 ‘피’라는 것 역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새”에서 첫 연 ‘저 청정한 하늘 / 저 흰 구름 저 눈부신 산맥 / 왜 날 울리나 / 날으는 새여 / 묶인 이 가슴까지만 해도 시는 푸르다. 이상은의 가요 “새”가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그러나 바로 다음 연에서 높고 푸른 시상은 무참히 곤두박질친다. ‘밤새워 물어뜯어도 / 닿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며 / 피만이 흐르네 / 더운 여름날의 썩은 피’ 스스로의 청춘을 ‘피투성이’라고 부르는 김지하의 글은, 흉터가 아닌 상처를 다루고 있다. 그의 글에는 채 굳지 않은 피가 흐른다.

그의 글이 막 정치적이지는 않다. 사회와 삶과 사랑으로 인한 개인의 번뇌를 담는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의 호소는 ‘병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의 글은 통증을 넘어서 병적이다. 부조리와 모순에 사무치도록 괴로워하는 것은 시대에 공명하는 깊은 감수성 정도로 읽을 수 있겠으나, 그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은 조금 무서울 정도로 어쩐지 잘못 되었다. “소를 찾아 나서다”, “악박골”, “염서” 등 김지하의 시에서 ‘애린’이라는 사람은 수없이 등장한다. 특히 ‘결핍’과 ‘간핍’에 드러나는 ‘애린’에 대한 사랑은 집착 수준에 가깝다. ‘간핍’에서 화자는 ‘술병 속에 갇힌 애린’을 본다. 이어 술을 마시고는 병을 깨뜨려, ‘애린’에게 닿고자 ‘날카로운 유리조각들 위에 얼굴을 묻고’ 몸부림친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나도 진저리가 나는데, 아마 ‘애린’ 본인이 김지하의 글을 읽으면 꽤 소름끼치지 않을까. (‘애린’이 질색할 만한 글은 따로 있었다. 바로 “똥”이라는 시인데, 장정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발상의 시이다. ‘똥 보면 베먹고 싶어 / 똥 속에서 배시시 / 애린이 웃어설 게야 / 꼭 그럴 게야.’)

혹자는 김지하의 글이 부담스럽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쉬이 읽을 수 있는 글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한다. 그의 글은 어떤 형태로든 불편함을 남긴다. 그러나 그의 글이 마냥 자극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좋다. 그의 글에는 꼭 한 구절 이상 힘이 담긴 문장이 존재한다. 예컨대 ‘하루도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 하루도 싸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 삶은 수치였다 모멸이었다 죽을 수도 없었다 (“결별”)’ 같은 문장은 보편적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기형도의 문장과도 닮아 있는가 하면, ‘1974 년 1 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중략) 아니면 믿어 의심치 않기에 /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 저 모든 눈빛들을 죽음이라 부르자 (“1974 년 1 월”)’ 같은 글은 반대로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어 고은의 글을 연상시킨다.

전문인용한 “바람 1”이라는 시는 앞서 서술한 특징들이 잘 드러나는 시이다. 시어 ‘피’가 등장하고, ‘모로 누운 채 잠든 내 / 주검 곁에서 웃어라 / 너는 크게 웃어라’라고 말하는 기괴한 부탁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이 시가 좋았던 것은 ‘연꽃’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돌미륵’과 함께 불교적인 심상을 끌어와, 고통과 번뇌로 가득했던 김지하가 해탈을 바라고 있다고 해석했다. 죽음마저 간절히 원한 안식이니 ‘너는 크게 웃으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칼날이며 / 연꽃이 되라’, ‘손에 쥔 것은 칼이 아닌 / 연꽃이 되라 / 연꽃이 되라’는 바람에는 자신은 싸우다 죽더라도,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자신이 칼을 쥐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사랑이 담겨있었다. “용서”. 김지하는 용서를 통해 안식을 찾기를 바랐다. 피비린내 나는 그의 글에 한 점 연꽃 향기가 실려 있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김지하의 글이 좋다. 더운 피가, 그 붉은 기운이 역설적으로 삶을 표현하는 것 같아 아름답다. 오히려 ‘꽃’같은 마냥 예쁜 시어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다가온다. 햇불처럼 사는 인간은 피는 꽃처럼 아름답다. 인간은, 피는, 꽃처럼 아름답다.



“마지막 살의 그리움”, 김지하 (미래사)

1991년 11월 15일 1판 1쇄 발행

1994년 12월 25일 1판 7쇄 발행